

# 청년 국악, 오늘과 내일... 진도서 펼쳐는 '대학국악제'

국악의 미래를 이끌 청년 예술가와 연구자들이 진도에 모인다. 무대 위 창작 공연과 학술 연구 발표가 한자리에 펼쳐져 국악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조망하는 축제가 열린다.

국립남도국악원(박정경 원장)은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국악원 진악당에서 '2026 대학국악제-요즘국악 ON'과 '연합세미나'를 연계한 대학 국악 축제를 연다.

이번 행사는 국악 실기 전공생들의 창작 공연과 국악 이론 전공생들의 연구 발표를 결합한 형태로 마련됐다. 공연과 학문을 별개 영역이 아닌 하나의 국악 생태계로 연결해 국악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올해 처음 선보이는 '요즘국악 ON'은 청년 국악인들이 직접 기획하고 창작한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공연형 축제다.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현대적 감각과 실험성을 더한 다양한 창작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첫날인 19일 오후 7시에는 부산대학교와 경북대학교가 무대에 오른다. 두 대학은 전통 음악 어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실내악 중심의 창작 작품을 선보이며 젊은 국악인들의 감각과 실험 정신을 보여줄 방침이다.

20일 오후 3시에는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영남대학교가 참여한다. 각 대학은 종합 창작 작품과 지역 전통예술을 기반으로 한 무대를 준비해 국악의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전남대학교는 국악과 무용, 연극적 요소를 결합한 창작 종합예술 작품을 선보인다. 김상연 교수가 지도한 작

품 '별 잃은 비둘기-혁명전 집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도시 공간과 인간의 기억을 주제로 현대인의 삶을 성찰한다. 함께 공연되는 '전주곡: 위대한 삶-삶의 무게를 버려내는 시선'은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는 예술인의 삶을 국악으로 풀어낸다.

전북대학교는 전통 기악합주가 중심인 '국음악'으로 무대를 채운다. 경기민요풍류와 판굿놀이로 통해 전통 음악이 지닌 공동체성과 흥을 현대 관객에게 전달할 계

획이다. 특히 지역 농악과 민속예술의 요소를 적극 활용해 전통의 생명력을 보여준다. 영남대학교는 영남농악을 중심으로 팽고리와 장구, 북, 징이 어우러지는 역동적인 판국 무대를 통해 공동체 문화를 보여주며, 흥겨운 장단과 역동적인 움직임이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할

19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세미나에는 서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를 비롯한 4개 대학 학생들이 참여해 모두 20편의 논문을 발표한다. 국악사와 민속음악, 공연예술, 문화정책 등 다양한 분야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차세대 국악학자들의 연구 역량을 기른다. 이번 축제는 단순한 경연이나 발표회를 넘어 국악의 창작과 연구가 서로 만나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실기 전공생들은 실제 무대 경험을 통해 창작 역량을 키우고, 이론 전공생들은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국악의 학문적 지평을 넓힌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청년 국악인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지원하고, 국악 공연과 학술 연구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박정경 원장은 "대학 국악 축제는 청년 국악인들이 창작 역량을 마음껏 펼치는 무대이자 미래 국악학자들이 연구 성과를 나누는 학술 교류의 장이다"며 "전통을 기반으로 새로운 국악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일정과 프로그램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 국립남도국악원, 요즘국악 ON·연합세미나 19~20일 진악당서 전남대·영남대 등 7개 대학 참여... 창작 공연·학술 발표 한 자리



국립남도국악원은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국악원 진악당에서 '2026 대학국악제-요즘국악 ON'과 '연합세미나'를 연계한 대학 국악 축제를 연다. 사진은 부산대 공연 모습.

## 일상 속 행복의 순간과 따뜻한 기억 펼치다

예술공간 집, 정승원 개인전 내달 5일까지 20여점 선배 대표작 '양동시장' 시리즈 등... 'GB작가탐방' 프로 등도

GB 작가탐방, 광주 미술 현장서 진행 광주비엔날레, 뽕뽕브릿지 등 7곳서

예술공간 집은 전속작가 정승원의 개인전을 17일 개막. 오는 7월 5일까지 '우리가 사랑한 날들'(The Days We Loved)이라는 타이틀로 갖는다. 출품작은 회화를 중심으로 판화, 미디어, 입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등 행복한 순간과 기억을 기록해 온 작가의 대표작과 신작 20여점.

초기 작업부터 최근 신작에 이르기까지 작품세계의 흐름을 조명하는 자리가 될 이번 전시는 오랫동안 탐구해온 작가의 삶 풍경과 기억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일상 속에서 발견한 행복의 순간과 따뜻한 기억을 주요 소재로 작업해온 작가는 햇살이 머무는 오후, 나무를 오르는 아이들, 꽃이 피어나는 계절의 풍경,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 등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의 장면들을 작품 속에 담고 있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작품세계가 시작된 지점부터 현재까지의 추억과 감정 등을 망라해 여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작가가 처음 실크스크린 작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독일 유학 시절 친구들과 떠난 여행이었다. 여행이 끝난 뒤 사라져가는 기억이 아쉬웠던 그는 여행의 장면들을 그림으로 옮겼고, 이를 실크스크린으로 제작해 함께 여행했던 이들과 나눴다. 그렇게 탄생한 초기 작업은 독일에서 열린 첫 개인전으로 이어졌고, 많은 관객들에게 따뜻한 공감과 위로로 전했다.



'정원'

개인전에서는 작가의 출발점이 됐던 초기 작품과 귀국 후 제작한 대표작 '양동시장' 시리즈를 특별히 함께 선보인다. 작가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된 이 작품들은 최근 신작들과 나란히 소개되며, 작가가 꾸준히 이어온 작품세계의 흐름과 변화의 과정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작가가 오랫동안 탐구해온 기록과 기억, 복제와 공유라는 주제의식과 맞닿아 있는 이번 전시는 판화 작가로 널리 알려진 그의 회화를 중심으로 선보이는 신작 전시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작가는 실크스크린을 비롯해 목판화 등 판화기법과 입체, 설치, 미디어 등 다양한 표현 방식을 실험해 왔으며, 이번 전시에서는 오일파스텔 회화, 회화와 판화 기법을 결합한 작품, 영상 작업 등 매체 간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시도들을 선보인다. 전시 기간 중에는 관객들이 작가의 작품세계와 창작 과정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GB

작가탐방'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오는 23일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최연하 미술비평가(공간 풀스 디렉터)가 모더레이터로 참여해 정승원 작가와 함께 작품세계 전반에 담긴 이야기와 창작 과정, 이번 전시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정승원 작가는 이번 전시에 앞서 "나의 일상 속 행복한 순간들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평범한 장면들로 화면에 기록됐다. 작품들이 누군가에게 작은 미소를 선물하고, 또 특별하고 감시한 시간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승원 작가는 독일 브레멘국립예술대학교에서 통합디자이너를 전공했으며, 독일 베를린을 비롯해 서울, 부산, 제주, 광주, 무안 등에서 개인전과 100여회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광주시립미술관, 전남도립미술관, 무안군오송우미술관, 서울시청, 프랑스 파리 세르누치미술관 등에 소장돼 있다. 지난해 광주시립미술관 국제레지던시 입주작가로 활동했으며, 현재 대전시립미술관과 대전시세계갤러리에서도 전시가 이뤄지고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 아시아 놀이로 창의력 키우는 '여름예술학교'

ACC재단, 내달 18일부터 13개 분야 교육 진행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재단, 사장 김명규)은 여름방학을 맞아 예술과 놀이를 통해 세계 문화를 배우고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ACC 어린이 '여름예술학교'를 운영한다.

'여름예술학교'는 오는 7월 18일부터 8월 23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창작실습실과 어린이체험관 등에서 열린다. 교육 대상은 20개월 영유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다. 올해 여름예술학교에서는 연기, 무용, 음악, 아

시아 문화 등 총 13개 분야 차별화된 교육을 선보인다.

특히 지난해 어린이와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인기 강좌가 올해 더욱 알찬 구성으로 돌아와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2036 미래 영상 창작소'(스튜디오)와 음악극의 주인공이 돼보는 '롤러라라 영어 음악극'(뮤지컬)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찰랑찰랑 솔루우수우', '한여름 밤의 탐험대', '무당벌레가 되어버린 아이들' 등의 프로그램은 가족단위로 참가할 수 있다.

이밖에도 오는 9월 진행되는 '김명규 사장은 '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이 다양한 예술 분야를 직접 체험하며 오감을 깨우는 생생한 경험을 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ACC재단만의 특화된 제작물(콘텐츠)을 바탕으로, 어린이들에게 예술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특별한 교육 기회를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청 방법과 교육 일정은 ACC재단 누리집(www.acc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재) 광주비엔날레는 광주·전남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 연구 프로그램인 'GB 작가탐방 2026'(GB Artist Focus 2026)을 오는 23일부터 11월까지 광주의 7개 창작 공간에서 순차적으로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GB 작가탐방 2026'은 지역 예술 현장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예술 생태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광주비엔날레와 광주의 다양한 창작공간이 함께하는 기획으로 마련됐다.

올해는 예술공간 집을 비롯해 공유공간 뽕뽕브릿지와 오버랩, 스페이스 DDF, 이강하미술관, 지구발전오라, 호랑가시나무창작소 등 광주의 시각 예술 현장을 지평해 온 7개 공간을 무대로 진행된다. 양림동의 근대역사문화 거점부처 발산미술과 월산동, 충장로 일대의 독립 예술공간, 공립미술관, 갤러리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른 성격과 운영 철학을 지닌 공간들이 광주 시각예술 현장의 다층적인 지형을 보여준다.

선정된 작가와 참여 공간은 정승원·예술공간 집, 박이론·공유공간 뽕뽕브릿지, 이조흠·오버랩, 윤태준·스페이스 DDF, 권승찬·이강하미술관, 정덕용·지구발전오라, 설박·호랑가시나무창작소 등이다. 정승원 작가를 초청한 첫 공개토크는 오는 23일 오후 4시 예술공간 집에서 이뤄진다.

이번 프로그램은 각 공간이 지향하는 가치와 방향성에 따라 작가들 연결하고, 참여 작가와 비평가 1:1로 매칭해 대화를 나누는 공개 토크 형식으로 진행된다. 작가가 현재 참여 중인 전시와 주요 작업, 창작 과정을 함께 살펴보고 작업 세계를 탐구하는 자리로 진행된다.

예술과 창작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